

4 조선 시대 여성의 삶



조선을 지배했던 성리학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강조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지내는 공간까지 구별할 정도였죠.

조선 후기 여성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도리가 강조되었어요. 세 가지 도리란 태어나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고 나서는 아들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여성에게는 그저 결혼해서 남편을 잘 돕고, 아이를 낳아 잘 기르는 삶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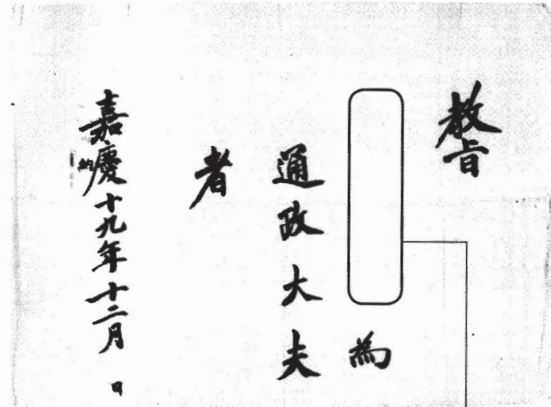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들은 행복했을까요? **EBS**

1 너도 양반, 나도 양반

이름 쓰는 난이 비어 있는 양반임명장

오른쪽 사진 속 문서는 ‘공명첩’이에요. 공명첩은 이름 쓰는 공간이 비어 있는 관직 임명장이에요. 임진왜란 이후 나라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나라에서는 관청에 많은 곡식을 내는 사람들에게 공명첩을 발급해 주었어요.

공명첩을 받는다고 해서 실제로 관직에 나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름뿐이긴 해도 도포 자락 휘날리는 품 나는 양반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양반이 되면 일부 세금을 면제받는 혜택까지 있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공명첩을 통해 양반이 되곤 했죠.



공명첩

이름 쓰는 난이 비워져 있음

양반의 증가



김득신, 〈노상알현도〉

“양반께서 지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왼쪽 그림을 보면 양반이 지나가는 길에 그림 속 오른쪽 백성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남자는 머리가 땅에 닿을 것 같아요. 이처럼 조선은 신분 제도가 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조선 전기까지는 신분의 구별이 엄격했지요.

조선 후기에는 농업과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부유한 상민들이 많아졌어요. 이들 중 상당수는 양반이 되고자 했어요. 상민이 양반이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1. 군사적 공을 세우거나 나라에 곡식을 낸다.
2. 부유한 농민이 양반의 족보를 사거나 위조한다.
3. 조상의 직업을 위조한다.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양반의 숫자도 크게 늘어났죠. 그러자 양반의 권위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도포

예전에 예절을 차릴 때 입던 남자의 겹옷. 소매가 넓고 등 뒤에는 다른 폭을 대어 만들어 입었다.

호기심 뽐뽐

공명첩을 주면 양반은 높고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들어 국가가 손해인데 왜 나라에서는 공명첩을 발급했나요?



공명첩을 받은 사람은 관리가 되어 양반이 될 수 있었어요. 양반은 세금을 일부 면제받으니, 공명첩을 많이 발급할수록 세금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당장 어려운 나라 살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명첩을 발행한 거랍니다.

2 조선 시대 여성들은 행복했을까요?

조선 전기 여성들의 삶



오죽헌: 신사임당의 외가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에서 율곡 이이가 태어났다.

조선 전기까지는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았어요. 조선 전기에 여자는 남자처럼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집안에서만은 비교적 남녀가 동등했어요. 족보에도 태어난 순서대로 오르고, 재산도 남녀 차별 없이 물려받을 수 있었지요. 남편이 먼저 죽은 여성은 재혼을 할 수도 있었어요.

신사임당도 결혼 후 오랫동안 친정에서 살며 율곡 이이를 낳아 길렀다는 사실도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는 조선 후기가 되면서 바뀌었어요.

성리학의 강화와 여성의 삶

조선 후기 성리학이 널리 퍼지면서 여성의 삶에 변화가 왔어요. 남성과 여성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성은 글공부보다는 바느질과 같은 집안일을 배우며 자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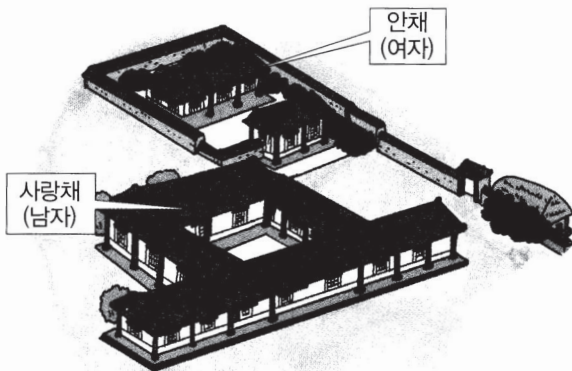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의 가족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시집살이가 시작되었고, 친정과는 멀어지는 ‘출가외인’이 되었죠. 결혼한 여성의 의무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못 낳은 여자는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재산도 아들에게만 물려주었죠. 특히 큰아들에게 많이 주었어요. 제사도 큰아들이 주로 지내게 되었고요.

↓ 출가외인

시집간 딸은 친정 사람이 아니라 남과 같다는 의미의 말



외출할 때에는 옷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남자와 여자는 생활하는 공간이 달랐어요.



바느질, 집안일 등은 여자가 할 일이었어요.

3 오만 원권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신사임당의 일생

오만 원권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조선 시대 여성 화가이자, 율곡 이이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이에요. 신사임당은 강릉에서 양반의 딸로 태어났어요. 신사임당은 7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녀는 외가 친척들과 교류하면서 사·그림·글씨를 배웠어요.

19세가 되자 신사임당은 이원수와 결혼했고, 아들 넷과 딸 셋을 낳았지요. 그중 셋째 아들이 조선의 대학자가 되는 율곡 이이에요. 신사임당은 결혼을 하고도 20년간 시집인 서울에 가지 않고 친정이 있는 강릉에서 주로 살았다고 해요.

신사임당이 살던 조선 중기까지도 성리학이 뿌리 깊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결혼한 여성이 친정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신사임당은 38세 때 서울로 이사 와 지내다가, 48세 때 병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오만 원권의 신사임당

교류

문화나 사상 따위가 서로 통함

멋진 그림을 남긴 여성

신사임당은 시, 그림 등에도 뛰어난 재주를 지닌 여성이었어요. 신사임당이 풀벌레를 그린 그림을 내놓았는데 닭이 진짜 벌레인줄 알고 그림을 쪼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그녀의 그림 솜씨는 뛰어났죠. 신사임당은 꽃, 풀, 벌레, 과일 등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어요.



신사임당, <초충도>(풀과 벌레를 주제로 그린 그림)

? 호기심 뽐뽐

조선 전기와 후기의 여성들의 삶이 달랐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선 전기에는 고려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지위가 높았어요. 남성과 비교적 동등하게 제사도 지내고 재산도 물려받았지요. 그때까지는 성리학이 널리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 성리학이 널리 퍼지면서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었고, 조선 전기와 달리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해졌지요.

4 아름다운 시를 남긴 허난설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조선 중기에 살았던 천재 시인



허난설헌 생가

맑은 가을 널찍한 호수에 맑고 푸른 물 넘실래는데
연꽃 우거진 곳에 아름다운 배 매어두고
임을 만나 물 사이로 연밥을 던지다가
행여 남들 눈에 띄었을까 반나절이나 부끄러웠네

이 시는 사랑에 빠진 여인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여성의 설렘, 부끄러움이 잘 드러나 있네요. 이 시를 지은 인물은 조선 시대 여성 시인인 허난설헌이에요.

허난설헌의 동생인 허균은 허난설헌이 죽은 이후 누나의 시를 모아 《난설헌집》이라는 책을 내어 그녀의 시를 세상에 알렸어요. 이 시집은 중국과 일본에 까지 전래되어 큰 인기를 누렸어요.

하균

조선 시대의 문신이자 소설가로
서자를 차별 대우하는 사회 제도를 비판하는 《홍길동전》을 씀

불행했던 삶을 살았던 허난설헌

허난설헌은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어린 허난설헌에게도 다른 남자들처럼 교육의 기회를 주었어요. 허난설헌은 당시의 유명한 시인에게 교육을 받기도 했죠. 15살이 되던 해에 그녀는 명문 가문의 아들인 김성립과 결혼했어요. 남편의 집안은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강했어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란 허난설헌은 잘 적응하지 못했죠.

“조용히 남편이나 보필하고 살면 되지, 시는 무슨 시야!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천재 소리를 듣는 잘난 부인, 부담스러워.”

허난설헌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탐탁지 않았고, 남편은 부인이 부담스럽기만 했어요. 자연스럽게 사이도 좋지 않았죠.

허난설헌은 시를 쓰면서 이 상황을 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허난설헌의 아버지와 오빠가 죽고 사랑하던 두 명의 자식도 병에 걸려 죽자, 그녀는 점점 쇠약해져 갔지요. 결국 허난설헌은 27세의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어요.

